

#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Chinese Married Women\*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김 경 신  
시간강사 이 선 미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Kyeong Shin  
Lecturer : Lee, Seon Mi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fo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Chinese Married Women(KCMW), to exa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and analyze the effective variables influencing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were 337 KCMW over 20 years old living in China. The subjects completed a questionnaire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average scores of life satisfaction were higher and depression were lower than the median. Therefor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 of KCMW was higher than that of the media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 of KCMW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pattern of family and living condition. The life satisfaction of KCMW was influenced by living condition, family value orientations, ethnic identity, and th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The depression of KCMW was influenced by age, self-esteem, sex-role attitude, and th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주제어(Key Words):** 조선족기혼여성(Korean-Chinese Married Women: KCMW),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우울(dep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Seon-Mi Lee,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0320 Fax: +82-62-530-1329 E-mail: dreamlp@empal.com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L2002).

## I. 서론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적 적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특히 한인여성간 교류 협력과 공동체적 정체감 형성이 강조되면서 국외거주 한인 여성들의 생활실태나 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 비교적 한인으로서의 생활습관이나 가족 의식 등을 뿌리 깊게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중국 자체의 개혁 개방의 물결과 한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정부로부터 정부 수립에 공이 있음을 인정 받았고 민족언어 사용과 민족문화 유지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족은 최근까지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다. 효개념, 남아선호사상, 성역할, 성규범, 남녀의 차이 등 의식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전통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왔고(강순화, 2002), 가정은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중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1978년 실시된 중국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가정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선족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자본획득을 위해 농촌에서는 도시로, 도시에서는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특히 한·중 수교로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왕성해지면서 조선족은 국외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초기에 친척방문으로 시작된 국외진출은 점차 장사, 노동력 수출, 사업연수, 국제결혼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발전되었다(김성걸, 2000).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조선족여성들이 존재해 왔다.

중국 조선족여성들은 여성노동력의 사회화를 강조한 사회주의체제에서 남성과 동등한 취업과 권리를 인정받아왔다(강순화, 2002; 김호웅, 1995).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은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였고 한편으로는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여성들은 조선족남자들보다도 먼저, 다른 민족의 중국인보다도 먼저 시장경제체제에 뛰어들었다. 조선족여성들은 짚장사로 대표되는 자영업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조선족여성들의 비율은 매우 높다(강순화, 2002; 김호웅, 1995). 그러나 한편으로 개혁개방은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실시한 이래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1차 내부퇴직 대상자들은 주로 45세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실제로 2000년 제5차 인구보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변 지역 45세 이상 여성의 취업 하강비율은 남성의 취업 하강 비율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림금숙, 2003). 따라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중국 조선족여성들은 사회구조적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변화된 현실상황과 함께 전달된 서방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조선족여성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조선족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조선족 사회의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애인현상이나 국제결혼도 증가하였다. 조선족 여성의 의식 변화 경향은 현재 과도기에 처해있다 할 수 있어, 조선족 가정은 전통적 생활양상과 현대적 생활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박민자, 2000).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부부유별', '조강지처', '일부종사'와 같은 전통적 규범이 의식에 깊숙이 남아 가정의 안정성과 남성중심적인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반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혼외연애', '시혼인', '비둘기부부(DINK족)',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등 현대적 가치관이 반영된 가정생활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여성이 겪고 있는 변화는 비단 여성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까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은 56개 중국 민족 중 가장 교육열이 높고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민족 중 하나이다. 이는 조선족 어머니들의 가정내 가르침과 조선족사회의 노력이 맞물려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선족 기혼여성이 중심이 되어 나타나는 출산기피 현상으로 인해 조선족 인구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결국 조선족자치주의 와해론까지 대두되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이혼이 많아지면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아이들의 교육은 방치되고 있다. 아이들의 심리적 불만은 사회적 비행으로 연결되고 있어 조선족 가정의 문제는 조선족 사회, 나아가 중국내 청소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허명철, 박금해, 김향화, 이정, 2003).

조선족 기혼여성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때로는 변화를 주도하며, 때로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다양한 심리양상을 경험해 왔다. 한편 조선족 기혼여성들은 조선족가정의 안정과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조선족가정의 형성을 위해서는 조선족기혼여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심도 있는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된 조선족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그들의 생활이나 의식에 대한 단순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다(강순화, 2002; 이복순, 1999; 이봉연, 1993; 채미화, 2003).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조선족여성들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우울 등 심리적 복지에 관심을 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데, 과도기 중국 조선족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적응도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주부는 가정의 안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이들의 높은 심리적 복지 수준은 건강 가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실시된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연령, 생활수준 인지도,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가족자원 등 다양한 변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여성은 한민족이지만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조선족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상황에 처해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족의식이나 가치관, 한민족의 정체성 등이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거주지역의 특이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 조선족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심리적 복지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려 한다. 이를 통해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조선족여성과 가정의 건강성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국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3. 관련변인이 조선족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생활 변화

중국 조선족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형성하여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 해 왔다. 남녀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국 경제체제 하에서도 조선족여성들은 사회와 가정의 이중 부담을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자아 희생을 통해 가부장의 권위와 전통적 효개념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여성의 태도는 안정적인 가정생활, 우리민족의 문화와 풍속을 굳건히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의 사회변화는 개인의 가치관변화를 이끌었다. 가족의 특성보다는 개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가정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보다는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혼인을 가문의 결합으로 보고 부모님의 의견이나 주위 친

척들의 의견을 존중하던 의식이 변화하여 사랑을 토대로 하는 결혼을 중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독신주의'나 '비둘기부부'(자녀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부부)를 선호하는 여성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김호웅, 1995; 이복순, 1999; 이봉연, 1993; 채미화, 1995). 한편 중국 정부에서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조선족여성은 남아선호에서 벗어나 건강한 아이를 낳아 훌륭히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강순화, 2002; 김호웅, 1995;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 1993; 채미화, 2003).

조선족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 수준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강순화, 2003; 박경휘, 1999; 오상순, 2000; 조복희 외 2인, 1993; 채미화, 1995). 조복희 외 2인(1993)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5%가 집안일에서나 바깥일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는 일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강순화(2003)의 연구에서는 50.4%의 여성이 '남자는 사회, 여자는 가정', 72.2%의 여성이 '남편의 성공이 곧 아내의 성공이니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을 도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적으로 한민족은 가정 내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부장의 결정을 존중해왔다. 가부장은 가정에서의 대표권, 지배권뿐만 아니라 경제권까지 독점하였다. 따라서 일상 사무, 중대한 사무의 결정권도 가부장 한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정 내 남녀평등이 실현되면서부터 가정의 일상 사무 결정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숙진, 1993).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의사결정권의 동등성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조선족가정의 의사결정권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사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경제생활이나 가사노동분담 등 일상적인 사안일 경우는 부부공동결정의 비율이 높으나 집짓는 문제, 고급상품과 대형도구를 구매하는 문제, 투자 혹은 대부하는 문제, 자녀들의 진학과 직업선택문제 등 가정의 중대한 사무결정에서는 남성위주의 결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웅, 1995; 이복순, 1994).

이처럼 중국 조선족 가정생활의 특성은 표면적으로는 근대성이 두드러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통성을 고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상순, 2000). 이복순(1999)은 조선족여성에게 있어 전통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의 혼재는 상당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는데, 표면적으로는 평등주의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가족의 내부 역동성 변화는 그리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근대적인 외형과 전통적인 내부 구조 사이에 괴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조선족은 민족 자긍심과 민족풍속 등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높았다(김호웅, 1995; 채미화, 1995). 채미화(1995)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민족이라는데 대

해서 조사 대상의 90%이상이 수긍하였고, 잇사람을 존중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고 화목하게 보내는 민족의 미풍양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민족정체성이란 어느 한 민족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말하는데, 중국 조선족여성은 모국의 동포를 포괄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집단으로서의 자기집단 정체성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김호웅(1995)에 따르면, “귀하는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긍정적 응답이 92%였고, 채미화(1995)의 연구에서도 84%의 여성이 조선 민족으로 태어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정체성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연, 김미경과 도현심(2000)의 연구에 따르면 평상시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한어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70%)를 넘었으며,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세대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조선족 여성들의 민족의식은 낮아지고 있었고(박혜란, 1994), 조선족의 문화는 조선반도도 중국 한족의 것도 아닌 이질적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리동근, 2000).

개방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의 변화와 가정생활의 변화는 아직도 과도기에 처해 있다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변화를 수용하며 살아야 하는 중국 조선족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 또한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심리적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 2.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기혼여성의 연령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정진희, 이정우, 2005)와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연구(양명숙, 하경란, 1997)가 있다. 한편 생활수준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기혼여성이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심혜선, 이정우, 2001).

### 2) 심리적 특성 관련변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남녀평등의식 등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 상처를 입기 쉽고 우울증이나 정서적 긴장, 불안을 보이게 된다(Wilson & Krane, 1980). 조옥희(2004)는 중년기 취업주부의

자아존중감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혔는데, 많은 연구들(박정희, 유영주, 1999; Longmore & Demaris, 1997)이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간의 부적 상관을 제시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남녀평등의식과 심리적 복지 관련 연구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지금까지 실시된 남녀평등의식과 심리적복지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는 성역할태도와 관련성을 통해 진행되어왔는데,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주부는 평등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주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 맞벌이 부부들은 결혼관계에서 평등적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결혼만족도가 높기도 하다는 연구 등이 있다(윤경자, 1997). 한편 조금숙과 조중열(2004)은 취업주부의 경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전업주부의 경우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혜원(199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 3) 가정생활 관련변인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다양한 가족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Aneshensel(1986)은 부부관계의 질이 특히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들은 혼자 살거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들보다 더 우울하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Dehle와 Weiss(1998), Schmaling과 Jacobson(1990), 조옥희(2004) 등과 유사하다.

하은혜, 오경지와 김은정(1999)은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지각, 부부관계 적응 등 자녀와의 관계 및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Schmaling과 Jacobson(1990)은 가족원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패턴이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부 의사결정권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박민자(1997)는 부부공동 의사결정형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신화용과 조병은(1999)은 은퇴한 부부의 의사결정권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정희와 유영주(1999)에 따르면 부부간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공평한 대우를 받는가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생기면서 우울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 조선족여성은 한반도를 떠나 타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생활해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민족성을 공유하면서 모국에서 생활해 온 한인여성들과는 다른 민족의식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 관

련변인, 가정생활 관련변인과 함께 가족가치관, 민족정체성 등을 포함시켜 심리적 복지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중국 조선족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 관련변인, 가정생활 관련변인, 심리적 복지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거주지역, 연령, 교육 수준, 종교, 가족형태, 생활수준인지도, 직업, 건강상태, 이민족 혼인상태, 이주시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 2) 심리적 특성 관련변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남녀평등 의식, 가족가치관, 민족정체성 등을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5였다. 남녀평등 의식은 옥선화와 백희영(1999)을 토대로 8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의 남녀평등 의식을 조사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는 .74였다. 가족가치관은 관련연구(김경신, 2002; 옥선화, 1989; 옥선화, 백희영, 1999)를 토대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가족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효사상, 노부모 부양 의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1이었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중심이 아닌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 부양 및 효와 관련된 가부장적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민족정체성은 이애리아와 백태현(2001), 옥선화와 백희영(1999)을 참고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 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조선족의 문화를 지키려 노력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족정체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 3) 가정생활 관련변인

가정생활 관련변인으로 부인의 의사결정권한, 가족관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부인의 의사결정권한을 측정하기 위해 소규모의 소비결정권, 대규모의 소비결정권, 가족내 의사결정권의 소유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이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Cronbach'  $\alpha$ )는 .68이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등 전반적인 관계만족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조사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 4)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긍정적인 복지와 부정적인 복지로 구분된다. 이 두 차원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일상생활속에서 항상 존재하며 긍정적 차원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정적 차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Bradburn, 1969).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긍정적 복지와 부정적 복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으로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으로 우울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복지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나는 전반적인 나의 삶에 만족한다' 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생활전반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관련된 5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Cronbach'  $\alpha$ 는 .71이었다.

#### 2. 조사대상자

이 연구는 중국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조선족 기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길림성에서는 장춘시, 길림시, 연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흑룡강성은 하얼빈, 요녕성은 심양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부실기재 된 설문지를 제외한 33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길림성 거주자가 71.5%였고, 요녕성 거주자가 15.1%, 흑룡강성 거주자가 13.4%였다. 연령분포는 각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었고, 13년 이상 교육받은 비율이 69.9%로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직업분포는 사무직 종사자가 39.6%, 전문·경영관리직이 18.7%, 자영업·판매직이 13.5%이었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8.4%였고, 종교가 없는 비율이 80.2%였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52.6%, 부부만 사는 형태가 32.1%였다. 이민족 혼인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변인		N(%)
지역	길림성	241(71.5)	생활수준 인지	중상	102(30.3)
	흑룡강성	45(13.4)		중	163(48.4)
	요녕성	51(15.1)		중하	56(16.6)
연령	20대	22(6.7)	종교	없음	243(80.2)
	30대	66(20.2)		있음	60(19.8)
	40대	78(23.9)	건강상태	건강함	109(32.8)
	50대	77(23.6)		보통	185(55.7)
	60대	83(25.5)		건강하지 못함	38(11.4)
교육연수	9년이하	15(4.5)	가족형태	부부와 미혼자녀	172(52.6)
	10-12년	78(25.2)		확대가족	50(15.3)
	13년 이상	217(69.9)		부부만 사는 형태	105(32.1)
직업	주부, 무직	39(12.0)	이민족 혼인	조선족과 초혼	301(89.3)
	단순노무직	13(4.0)		조선족과 재혼	23(6.8)
	농축수산업	5(1.5)		타민족과 초혼	11(3.3)
	자영업·판매직	44(13.5)		타민족과 재혼	2(0.6)
	기술직	7(2.1)	이주시기	할아버지세대 이전	203(64.6)
	전문기술직	23(7.1)		부모님이 어려실 때	74(23.6)
	사무직	129(39.6)		부모님이 성인이 된 후	33(10.5)
	전문·경영관리직	61(18.7)		내가 처음 옴	2(0.6)
	기타(학생 등)	5(1.5)		기타	2(0.6)

\* 무응답사례로 인해 빈도와 백분율이 다를 수 있음.

부를 살펴보면 조선족과 혼인한 여성이 96.1%였고, 타민족과 혼인한 여성이 3.9%였다. 이주시기는 할아버지세대 이전에 이주한 여성이 64.6%로 대다수가 이민 3, 4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2004년 1월에 중국 동북 3성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현지에 거주하는 대학부설 연구소장을 현지 조사 책임자로 위촉하고 그 책임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이 현지조사 책임자는 현지 조사원을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사원들은 조선족 기혼여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는데, 빈도, 백분율,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및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및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4.00점으로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은

2.78점으로 중간점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가족가치관도 3.27점으로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4.2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족여성의 낮은 평등의식은 많은 연구들(강순화, 2003; 박혜란, 1994; 오상순, 2000; 조복희 외 2인, 1993)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며, 가족가치관도 박경휘(1999), 조복희 외 2인(199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국 조선족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조선족의 문화, 전통적 생활양식을 비교적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

〈표 2〉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및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M(SD)
심리적특성	자아존중감	4.00(.72)
	남녀평등의식	2.78(.78)
	가족가치관	3.27(.77)
가정생활특성	민족정체성	4.27(.69)
	부인의 의사결정권한	3.77(.80)
	가족관계 만족도	4.19(.72)
심리적복지	생활만족도	3.99(.91)
	우울	2.78(.79)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중국 조선족 여성의 가치관이 근대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강순화, 2002; 김호웅, 1995; 박민자, 2000; 오상순, 2000; 이복순, 1999), 추후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특성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정생활특성과 관련된 변인의 일반적 경향에 따르면, 부인의 의사결정권한은 3.77점으로 중간점과 비교시 부인이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4.19점으로 나타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 가정은 중국 사회의 남녀평등 실현 이후 가정의 일상 사무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의사결정의 사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사안의 규모가 작을 때는 부부공동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대한 사무결정에서는 남성위주의 결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호웅, 1995; 이복순, 1994; 조복희 외 2인, 1993; 최숙진, 1993). 이 연구에서도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소비결정권, 대규모 소비결정권, 중요 의사결정권의 평균이 각각 4.31, 3.37, 3.62점을 나타내 소규모 소비결정권에 관한 부인의 권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생활만족도는 3.99점, 우울은 2.78점으로 나타나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복지상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기혼여성들이고 비교적 중간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사무직,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선족 기혼여성의 긍정적인 심리적 복지는 한국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심혜선, 이정우, 2001; 조옥희, 2004).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연령, 가족형태, 생활수준인지도에서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만족도의 경우 연령과 생활수준인지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60대와 20대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생활수준을 중하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여성이 다른 집단의 여성보다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 가족형태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60대인 기혼여성의 우울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와 40대 여성의 우울수준이 다른 집단의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핵가족이나 확대가족보다 부부가족의 우울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면, 20대는 생활만족도와 우울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 심리적 복지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생활하면서 자본주의에 매우 익숙한 한편 경제활동 이외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규제 아닌 규제를 받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아 상당수가 고학력자이지만 과거 사회주의 체제와는 달리 스스로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은 황제'로 불리며 유복하게 성장한 20대는 이러한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오히려 남성의존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박혜란, 1994). 따라서 욕구와 현실사이에서 갈등하는 20대는 이중적인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0대의 경우 생활만족도 수준은 가장 낮고 우울 수준은 높아 다른 연령에 비해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인간발달과정 상 중년기에 해당하며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자녀의 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겪어 우울수준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변인		빈도	생활만족도				우울				
			M	SD	D		M	SD	D		
연령	20대	22	4.14	.77	A		3.01	.73	A	*** 6.36	** 3.70
	30대	66	3.76	.91	B		2.78	.80	AB		
	40대	78	3.69	.93	B		2.96	.75	A		
	50대	77	4.01	.93	AB		2.74	.84	AB		
	60대	83	4.31	.76	A		2.53	.74	B		
가족형태	핵가족	172	3.90	.97			2.98	.83	A	1.97	** 6.77
	확대가족	50	4.02	.89			2.88	.75	A		
	부부가족	105	4.11	.78			2.55	.72	B		
생활수준인지	중상	102	4.22	.82	A		2.83	.77		*** 9.62	.69
	중	163	3.96	.87	A		2.72	.80			
	중하	56	3.57	1.04	B		2.81	.70			

\*\*p<.01 \*\*\*p<.001

이 증가하게 된다(정현숙, 서동인, 1994). 조선족 40대 여성은 개혁개방의 중심세대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학령기를 보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해야하는데 있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던 세대이며, 최근 들어 조기퇴직의 열풍속에서 또 다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걱정해야 하는 세대이다. 또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나 자녀교육의 부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40대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는 중간세대로서의 부담감, 위기감 등으로 인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1989). 조선족 기혼여성의 60대는 심리적 복지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0대는 대부분 은퇴하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적응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생활수준을 중하라고 인식한 집단의 기혼여성은 다른 집단의 여성보다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인 변수가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감에 경제적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고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조선족여성들의 소유욕과 소비욕구는 증가되었으나 수입의 부족, 직업 불안정 등 현실적인 요인에 의해 욕구 충족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앞서 관련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교육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변인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의 경우 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 $r=.70$ )이 높게 나타나

〈표 4〉 조선족 기혼여성의 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연령										
2. 교육수준	-.01									
3. 생활수준인지	.04	.06								
4. 자아존중감	** .16	.10	*** .23							
5. 성평등의식	-.10	.06	-.07	-.13*						
6. 가족가치관	*** .22	-.06	.10	*** .36	-.45***					
7. 민족정체성	*** .38	.14*	.04	*** .43	-.12*	*** .27				
8. 가족관계만족도	*** .20	.11	.13*	*** .40	-.07	*** .36	*** .44			
9. 부인의의사결정권한	.12*	.07	.04	*** .36	-.07	*** .32	*** .34	*** .37		
10. 생활만족도	.18*	.04	*** .24	*** .70	-.14*	*** .32	*** .34	*** .36	*** .25	
11. 우울	-.16*	-.06	.02	-.19*	-.30***	.10	-.13*	-.26*	*** .07	*** -.20

\* $p<.05$  \*\* $p<.01$  \*\*\* $p<.001$

〈표 5〉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생활만족도		변인	우울	
	B	$\beta$		B	$\beta$
생활수준인지도	.24	.18***	연령	-.09	-.13*
가족가치관	.16	.14*	자아존중감	-.15	-.14*
민족정체성	.33	.24***	성평등의식	-.34	-.34***
가족관계만족도	.32	.24***	가족관계만족도	-.24	-.22***
F	31.00***		F	21.56***	
R <sup>2</sup>	.27		R <sup>2</sup>	.20	

\* $p<.05$  \*\* $p<.01$  \*\*\* $p<.001$



회귀식에서 제외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계수는 남편, 부인 모두 1점대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생활만족도는 1.95, 우울은 1.64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생활수준인지도, 가족가치관, 민족정체성,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민족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은 27%의 설명력을 갖는다.

조선족 기혼여성의 우울은 연령, 자아존중감, 성평등의식, 가족관계만족도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은 20%의 설명력을 갖는다.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변인은 민족정체성( $\beta=.24, p<.001$ )과 가족관계 만족도( $\beta=.24, p<.001$ ),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성평등의식( $\beta=.34, p<.001$ )이었다. 생활만족도와 우울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변인은 가족관계만족도였다.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연령과 생활수준인지도 등이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져 심리적 복지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우울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소유욕이나 소비욕을 충족시키지 못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아져 심리적 복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생활수준인지도의 영향력은 한국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정자, 김갑숙, 1997; 심혜선, 이정우, 2001).

심리적 특성 관련 변인중에서는 자아존중감, 성평등의식, 가족가치관, 민족정체성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노은여, 권정혜, 1997; 박정희, 유영주, 1999).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의식과 우울과의 관계에 따르면, 낮은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울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여성 노동력의 사회화를 추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진출의 남녀평등은 국가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가정 내에서의 여성해방문제는 민족마다 차이가 있었다. 조선족 여성은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생활은 남성 중심이며 모든 가사노동은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조선족여성의 남녀평등의식은 최근 변화를 겪고 있는데, 5-60년대 여성들이 단순히 사회진출에서의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면, 80년대 이후 조선족여성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여성의 진정한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오상순, 2000). 하지만 여전히 조선족사회는 가부장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는 조선족여성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및 사회의 모순된 성평등의식은 우울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은 최근까지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왔다(강순화, 2002). 따라서 가족중요성이나 효 의식 등에 대해서 전통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고 이는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가질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여성의 이중구조의식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조선족여성의 이중구조의식은 조선족이 표면적으로는 근대성이 두드러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통성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힌 오상순(2000)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조선족여성들은 남녀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생활에서는 여전히 가족중심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국가적으로 실시된 남녀평등 한 사회분위기속에서 가부장주의를 유지해 왔으며 가부장의 권위와 효개념을 유지하여 왔다(박경휘, 1999). 조선족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는 남녀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고 보장받아 왔지만 가정내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박혜란, 1994).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나 가족가치관에서는 전통성을 지향하는 이중적 의식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평등적인 의식을 가질수록 우울수준이 낮고,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은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은 자치주를 형성하여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보존하며 한국 문화를 유지해 왔다. 또한 조선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우수민족으로 평가받아 왔다. 따라서 조선

족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조선족으로서의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족으로서의 이런 자신감은 생활만족도의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정생활관련변인 중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우울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 수준이 낮아져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선족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해외노무수출이나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갔고, 조선족 사회의 이혼율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해외에 나가있던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재적응을 잘 하지 못해 이혼을 하는 현상 또한 증가하였다. 개방이후 변화된 환경은 부부관계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강순화, 2002), 자녀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던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주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도모하며 가족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기혼여성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및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에 따르면,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관련 변인이나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의 수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남녀평등의식이 낮고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반도가 아닌 타 지역 그리고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체제하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민족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해왔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에 따르면, 가족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져 심리적 복지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고, 기존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념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달라지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따라

서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생활수준이란 중국 전반적으로 삶의 중요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특히 조선족 기혼여성의 경우 모국인 한국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국 방문, 한국 TV 시청 등을 통해 조선족 기혼여성들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상대적 빈곤감을 겪게 되고 이는 낮은 심리적 복지감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가정이 경제적 이익 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및 자본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한국 내 관련기관 및 중국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중국의 현실상황에 맞는 경제개념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관련된 가정경제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경제개념을 습득하도록 해 가정의 생활수준 인식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 수준도 높아 심리적 갈등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는 개혁개방이후 출생한 세대로 사회주의 체제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체제의 갈등, 자본의 부족,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심리적 복지 수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대 기혼여성은 조선족 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 세력이 될 것이므로 그들의 높은 심리적 복지감은 나아가 미래 조선족사회의 건강성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족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은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민족정체성, 가족관계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2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변인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 기혼여성의 가정 및 사회 생활과 관련된 이중적 의식구조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남녀평등을 강조하며 여성 노동력의 사회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족가정은 가부장적, 부모부양, 효 의식 등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며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조선족여성들은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이중적 의식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은

증가하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만족도는 향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적 의식구조는 현대의 사회변화속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일치된 의식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조선족여성들은 가정 및 사회에서의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고 있고, 가정생활양상도 전통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 조선족여성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존중과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최대의 만족으로 삼고 그것을 남녀평등의 실현이라고 여겼지만 개혁개방이후 여성들은 경제적 평등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등을 더욱 추구하고 있고, 가정내에서의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다(채미화, 1995).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수직과 남녀평등적인 의식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나 이에 대해서는 조선족 여성, 조선족 사회의 일치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일치된 의식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조선족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 및 의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와 여성의 변화, 남성의 역할 등에 관한 사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식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고취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을 통한 자아존중감 강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긍정적 평가를 생활화하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민족정체성은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특히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조선족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들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족 학교를 보내며 조선족의 문화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선족 학교를 다니는 것이 중국 내 다른 민족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요인이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한족학교로 전학시키고 있다. 또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내에서도 평상시 한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박성연 외 2인, 2000) 민족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박혜란, 1994). 상관관계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 때 민족정체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조선족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정체성 수준의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민족정체성은 사용하는 언어, 가

정 내 교육과 문화, 민족을 지키려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민족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변화하는 젊은 세대에 맞는 민족정체성 확립의 방법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중국 사회 내에서 경쟁력 있는 조선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조선족 가정, 조선족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인 전체의 응집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가족관계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별거 및 이혼가정, 결손가정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가족관계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 증진과 관련된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일부 조선족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에서는 사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의 취미와 관련된 교육이나 개인상담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을 뿐, 가정생활의 증진을 위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실시를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켜 중국 조선족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한 한국사회의 지원과 공통체적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혼, 별거 등 가족위기 및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동북 3성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체 중국 조선족 여성의 심리적 복지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만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족 기혼 남성의 심리적 복지나 남성 관련변인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된다면 더 풍부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강순화(2002). 중국 조선족 가족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 특강자료.

- 강순화(2003). 중국사회 가족의 변화. *여성연구*, 3, 154-170.
- 고정자, 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1.
- 김경신(2002).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 *한국노년학연구*, 11, 63-86.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걸(2000). 중국조선족현황분석의 방법론에 관하여. *중국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 김혜원(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김호영(1995). 중국조선족 가족실태 연구. *가족학논집*, 7권, 333-353.
- 노은여, 권정혜(1997). 결혼생활만족도와 자아존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II -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 리동근(2000). 90년대 조선문화정신의학개론. *중국조선족 현상태 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 림금숙(2003). 중한녀성취업구조비교. *여성연구*, 3, 188-212.
- 박경휘(1999). *중국 조선족 개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박민자(1997). 부부관계의 평등성.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박민자(2000). 중국 조선족 혼인가정 현상에 대한 재사고. *중국조선족 현상태 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 박성연, 김미경, 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159-175.
- 박정희, 유영주(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91-119.
- 박혜란(1994). 구술사를 통해 본 중국 조선족여성의 삶. *여성학논집*, 11집, 11-46.
- 신화용, 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심혜선, 이정우(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29-145.
- 양명숙, 하경란(1997). 모(시·친정)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01-313.
- 오상순(2000). 개혁개방과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의식변화. *민족과 문화*, 9권, 81-117.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 백희영(1999). 재미동포 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로스엔젤레스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이복순(1994). 중국조선족여성이 가정적 지위변화에 대한 고찰. *한민족여성학술대회 자료집*, 30-39.
- 이복순(1999). 가정내에서의 조선족 여성생활의 현황과 전망. *중국, 조선, 한국의 동포여성들의 삶 학술회의 자료집*, 15-31.
- 이봉연(1993). 길림성 민족구역자치지구에서의 조선족녀성의 지위를 논함, 제1차 동북아 여성학술대회 자료집, 31-44.
- 이에리아, 백태현(2001).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생활과 문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문화생활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카지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2000년도 한국재외동포재단 연구지원과제 연구보고서.
- 정진희, 이정우(2005). 판매직 주부의 공평성인지도·역할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 81-103.
- 정현숙, 서동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1, 2-38.
- 조금숙, 조중열(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 조옥희(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미화(1995). 당대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민족 문화의식. *재중한민족여성의 한국문화의식 학술자료집*, 47-59.
- 채미화(2003). 중한녀성문화심태비교연구-혼인과 성관념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3, 55-83.
- 최숙진(1993). 현실생활에서의 흑룡강 조선족여성, 제1차 동북아여성학술대회자료집, 81-96.
- 하은혜, 오경자, 김은정(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부부관계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79-93.
- 허명철, 박금해, 김향화, 이정(2003). 연변조선족 교육의 실태 조사와 대안연구. *료녕성: 료녕민족출판사*.

- Aneshensel, C. S.(1986). Marital and employment role-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adult women. In S. Hobfall(ed.). *Stress, Social Support, and Women*. Washington, DC: Hemisphere.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dline Press.
- Dehle, C., & Weiss, R. L.(1998). Sex differences in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marital quality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1002-1011.
- Longmore, M. A., & Demaris, A.(1997). Perceived in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moderation effect of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72-184.
- Radloff, L.(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aling, K. B., & Jacobson, N. S.(1990). Marital interac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229-236.
- Wilson, A. R., & Krane, R. W.(1980). Changes in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symptom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4, 419-421.

---

(2006년 11월 28일 접수, 2007년 1월 19일 채택)